

터키-쿠르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망

Understanding and Forecasting the Turkish-Kurdish Dispute

저자 (Authors)	김성운 Sung Woon Kim
출처 (Source)	Muslim-Christian Encounter 11(2), 2018.9, 113-150(38 pages)
발행처 (Publisher)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41380
APA Style	김성운 (2018). 터키-쿠르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망. <i>Muslim-Christian Encounter</i> , 11(2), 113-150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20.67.255.***
2021/02/08 (Accessed)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터키-쿠르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망

김성운*

I. 서론

II. 터키-쿠르드 문제의 역사적 배경

III. 터키-쿠르드 문제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

IV. 터키-쿠르드 문제의 발전과정

V. 터키-쿠르드 문제에 대한 전망

VI. 결론

* 고려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

I. 서론

쿠르드인들을 종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장된 가족의 형태인 ‘종족’이라는 용어보다는 ‘민족’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스미스(A. D. Smith)는 민족을 역사적 영토, 공통의 신화와 역사적 기억, 공통의 문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공동의 법적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이름을 가진 인간 공동체”로 정의한다.¹ 500여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통의 역사적 영토 언어, 종교, 문화, 역사 등을 공유하고 ‘쿠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 쿠르드족은 이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쿠르드족은 흔히 “국가 없는” 또는 “나라 없는”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세계에서 “국가가 없는 가장 큰 민족그룹”이다.² 한국에서 쿠르드족에 대한 연구도 “국가 없는 민족”의 문제로 다루어진다.³ 쿠르드족은 터키에 1500-2000만, 시리아에 200만, 이라크에 500만 이란에 1000만 그 외에 구소련 영토에 수십만이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르드족은 자신들의 국가 없이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의 국경지대와 주위 다른 몇 나라들에 분산되어 살아간다. 한 민족이 국가 없이 존재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인 것은 아니다. 모든 민족이 독립된 민족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민족이 반드시 자신의 국가를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인도 등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국가 내에 여러 민족이 공존할 수 있다. 또한 두 민족이 한 국가를 구성

1 Anthony, D. Smith, *National Identity* (Hornmondsworth-Middles: Penguin, 1991), 14.

2 Charles G. MacDonald, “The Kurds,” B. Schechterman and M. Slann, ed. *The Ethnic Dimens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Westport CT London: Praeger, 1993), 124.

3 공지현, “쿠르드족 민족주의 운동,” 『중동연구』 제18-2권 (1999): 153-188.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 국가가 지배적인 한 민족과 소수의 다른 민족으로 구성될 때 다수민족-소수민족 사이에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터키가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터키는 다수의 터키인들과 소수의 쿠르드인들로 구성된 국가이다. 아르메니아, 그리스, 아랍계 국민들이 있지만 그 수를 다 합해도 인구의 0.5%가 되지 않을 만큼 소수이다. 터키의 이 소수 민족들은 필요할 때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자신들의 민족이 세운 국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족 국가가 없는 쿠르드족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국가가 쿠르드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터키 국민가운데 쿠르드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적이 없다. 대략 1500만-2000만 정도의 쿠르드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추정치는 1991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투르구트 외잘(Turgut Özal)이 터키에 1200만 명의 쿠르드인이 있다는 발표에 근거한 것이다. 1200만은 당시 터키 인구의 20%에 해당되며 그 동안의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면 1500-2000만 정도로 추정된다.

터키인과 쿠르드인은 오랫동안 공존해 왔지만 18세기 오스만 제국의 쇠락과 민족주의 국가가 등장으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1923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현대 터키가 민족국가로 건국되면서 양자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쿠르드족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쿠르드족을 동화시키려는 터키 민족주의와 여기에 맞서 쿠르드 민족주의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양자의 충돌은 지난 한 세기 이상 서로를 강화시키며 계속되어왔다. 최근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쿠르드족과 관련된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터키에서 쿠르드족과 관련된 문제는 이들 나라보다 더욱 복

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외부인의 눈으로 터키 쿠르드족의 문제를 이해해 보려는 목적으로 연구 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자는 터키와 터키 쿠르드족의 문제를 터키나 쿠르드족 한편이 일방적으로 가하거나 겪는 문제가 아니라 양자가 함께 겪고 있는 ‘터키-쿠르드 문제’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요인들 그리고 이 문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작업을 토대로 터키-쿠르드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II. 터키-쿠르드 문제의 역사적 배경

쿠르드족은 주로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4개국 국경에 걸쳐있는 산악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른다. 쿠르드족은 거주하는 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500여개의 크고 작은 부족 공동체로 결속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메디아(Media) 왕국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고, 몇몇 부족이 지역 왕조로 발전한 경우도 있었지만 쿠르디스탄 전체가 포함하는 통일 국가를 설립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쿠르드인이라는 공통의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부족 간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쿠르드족은 1524년 찰디란(Chaldiran) 전투를 시작으로 17세기까지 계속 된 순니파 오스만 제국과 시아파 이란의 사파비(Safavid) 왕조 사이의 경쟁으로 사파비 왕조의 통치를 받는 지역과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는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의 쿠르드족은 오스만 황실과 동일한 순니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안정을 누렸다. 오스만 황제들은 제국 내의 다양한 공동체들을 종교에 따라 구분하여 통치하는 이슬람 밀레트(*Millet*) 제도를 시행하였다. 밀레트 제도 아래서 쿠르드족은 아랍, 터키, 알바니아 무슬림들과 함께 ‘지배 밀레트’(*Millet-i hakime*)인 이슬람 움마(*Umma*)에 속해 무슬림으로서의 특권을 누렸다. 쿠르드족은 오스만 제국 내에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만족하였으며 독립이나 자치권을 욕구하지 않았다.

쿠르드족이 누리던 안정된 지위는 오스만 제국의 쇠락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스만 제국이 급격히 기울던 19세기 중반 유럽 쪽 기독교 밀레트들이 그리스,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로 독립하자 오스만 황제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상대적인 자치를 누리고 있던 쿠르드족을 자신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두었다. 자신들의 영향력과 자치권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한 쿠르드 부족장들이 여기에 반발하여 1806년 압둘 라흐만 파샤(*Abdul Rahman Pasha*), 1833-1855년 미르 무함마드(*Mir Muhammad*), 1847년 베디르 칸(*Bedir Khan*), 1855년 옐단 셰르(*Yerdan Sher*)가 차례로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들이 일으킨 반란은 쿠르드 민족의식에서 발흥하거나 쿠르드 민족국가를 설립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⁴

쿠르드족이 민족의식을 가지고 일으킨 최초의 반란은 이란이 통치하던 지역에서 발생했다. 1880년 오스만 제국의 부추김을 받은 쿠르드 부족장 셰이크 우베이둘라(*Sheke Ubeydullah*)가 이란에서 쿠르드 민족국가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8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4 C. Celil, XIX. *Yüzyıl Osmanlı İmparatorluğu'nda Kürtler* (Ankara: Öz-Ge, 1992).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초기 상당한 세력을 떨쳤지만 이란의 강력한 반격과 반란이 성공할 경우 그 영향이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한 오스만 황제의 지원중단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반란은 오스만 제국 내의 쿠르드족을 자극하여 1914년 비들리스(Bidlis)에서 발잔(Barzan)이 독립을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발잔 봉기이후 쿠르드족의 반란은 본격적으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⁵

이후 1차 대전의 발발과 오스만 제국의 붕괴 그리고 터키 독립 전쟁으로 쿠르드족의 독립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이 시기 쿠르드 종교 지도자들과 부족장들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서구 열강에 맞서 이슬람을 수호하고 자신의 영토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쿠르드족 지도자들은 현대 터키 건국을 주도한 무스타파 케말(Mustafa Kemal)과 연합했다. 그러나 1923년 터키가 승리하고 무스타파 케말과 그의 동료들이 터키 민족국가를 설립하기 위해 쿠르드족을 압박하자 민족국가 설립을 목표로한 쿠르드족의 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말기 상황이 터키-쿠르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된 원인이 된 것은 1차 대전 후 영국이 쿠르드족에게 약속했던 독립국가 설립 약속의 불이행과, 신생 독립국 터키의 국가 주도적인 민족국가 건설 프로젝트였다. 1916년 프랑스와 영국은 러시아의 동의하에 사이크스-피코 협정(Sykes-Pico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골자는 양국이 이후 오스만 제국을 분할 통치하되 현 이라크 지역은 영국이 통치한다는 것이었다.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에서 패전하자 1920년

5 Hamit Bozarslan, "Kürt Miliyerçiliği ve Kürt Hareketi (1898-2000)," Tanıl Bora, Murat Gültekingil, ed. *Milliyetçilik* (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2002): 841-870.

세브르 조약(Treaty of Sevres)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이미 맺어진 사이크스-피코 협정에 따라 이라크를 영국이 통치하고 현재의 터키 영토인 아나톨리아를 승전국이 분할 통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조약은 또한 아르메니아의 독립과 1년 이내에 유프라테스 강의 동쪽과 이후 확정 될 아르메니아의 남쪽 국경 그리고 터키의 시리아 국경 북쪽 쿠르드 지역에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후 조건이 성숙되면 쿠르드족 국가를 설립한다는 보장을 하고 있었다.⁶ 쿠르드족의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이 세브르 조약에 포함된 것은 오스만 제국 스톡홀름 영사를 지냈던 세리프 파사(Serif pasa)가 쿠르드족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여 승전국을 설득하여 얻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조약이 체결되기 1년 전 1919년 무스타파 케말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아나톨리아 중부 엘주룸(Erzurum)에서 임시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때 소집에 응하여 참석한 56인 가운데 22명이 쿠르드족 대표들이었다.⁷ 무스타파 케말은 참석한 쿠르드족 지도자들에게 외세에 맞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치권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쿠르드족 지도자들은 위기에 처한 이슬람을 구하고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독립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1920년 세브르 조약이 체결되자 아르메니아의 독립으로 자신들의 영토를 상실하게 된 22명의 쿠르드 부족대표들은 터키와 쿠르드의 분리와 아르메니아 독립을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하였다.⁸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1920년 무스타파 케말이 독립전쟁을 위해 앙

6 J. C. Hurewitz, *Diplomacy in the Near and Middle East: A Documentary Record: 1914-1956* (Princeton, N. J: Van Nostrand, 1956), 82.

7 H. Yıldız, *Fransız Belgelerinde Sevr-Lozan-Musul Uçgeninde Kürdistan* (Istanbul: Koral, 1992), 34.

8 Ibid, 104.

카라(Ankara)에 소집한 국민대표회의에서 437명의 임시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74명이 쿠르드족 출신이었다.⁹ 독립전쟁을 위한 회의문서에는 ‘터키민족’이라는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대신 “한 민족을 구성하는 무슬림” 또는 “모든 무슬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미 터키 민족국가 건설을 설계하고 있었던 무스타파 케말이 ‘터키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쿠르드족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¹⁰

1923년 무스타파 케말이 이끄는 독립군이 승리하고 터키를 건국하자 세브르 조약에서 약속한 아르메니아 독립은 실현되었지만 쿠르드의 독립은 취소되었다. 이는 신생 터키가 쿠르드 독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영국 또한 이라크 북쪽 쿠르디스탄 지역에 유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쿠르드족의 독립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영국은 쿠르드족이 독립 국가를 세우면 터키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전을 관리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여러 쿠르드족 대표들이 영국과 협상하여 쿠르드 독립 국가를 세우려고 시도했지만 영국 정부는 쿠르드족의 독립을 지원하지 않았다.¹¹ 영국은 쿠르드족을 독립시키는 대신 북 이라크 쿠르드 지역을 터키에서 분리하여 이라크에 포함시켜버렸다.

쿠르드족의 협조로 독립전쟁을 승리한 무스타파 케말과 그의 동료들은 전쟁 전 쿠르드족에게 약속한 자치권을 하락하지 않았다. 자치권과 독립의 기대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쿠르드족 지도

9 A. Demirel, “Government and Opposition in the First Grand National Assembly,” (Ph. D. diss, Istanbul Bogazici Universitesi), 1993, 82.

10 Cevat Dursunoğlu, *Milli Mücadelede Erzurum* (Ankara: Ziraat Bankası Yayınları, 1946), 151–152.

11 H. Arfa, *The Kurds: 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y* (London: Oxford University, 1968), 27.

자들은 1923년 로잔에서 터키가 국제사회로부터 독립국가로 인정 받았지만, 자신들의 독립을 약속한 세브르 조약이 철회되고 민족이 이라크와 터키로 분할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무스타파 케말이 ‘터키’라는 이름으로 건국한 국가가 반종교적인 실증주의와 터키 민족주의를 건국이념으로 내걸고 세속주의적 민족국가 설립 프로젝트를 강압적으로 추진하자 쿠르드족의 반감은 더욱 커져갔다. 터키 정부는 민족국가 건설 프로젝트에 따라 쿠르드족의 존재를 부정하고 쿠르드인을 정체성을 잃어버린 산악지대의 터키인으로 치부하면서 강압적인 동화정책을 강요하였다. 쿠르드 지도자들은 터키의 그러한 강압 정책에 맞서 한편으로 쿠르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다른 한편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저항하였다. 터키-쿠르드 문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하여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Ⅲ. 터키-쿠르드 문제의 문화적, 경제적 요인

1900년 이전 아나톨리아에 거주하던 터키인들은 쿠르드, 아르메니아, 그리스인들과 구분되는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터키인’ 또는 ‘터키민족’이라는 주관적인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¹² 케말 파샤를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주도한 그룹은 전쟁에서 승리하자 1923년 프랑스의 자코뱅주의를 모델로 민족국가를 건설하려고 ‘터키’라는 요소를 들고 나왔다. 이들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흐릿하게 의식하고 있던 터키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터키 민족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터키 자코

12 Smith, *National Identity*, 20-21.

백주의자들은 터키인의 정체성을 터키어를 사용하는 무슬림으로 규정하고 인구교환을 통해 아나톨리아에 거주하던 기독교인을 유럽으로 보내는 대신 유럽의 무슬림들을 받아들여 그들을 터키인, 터키민족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무스타파 케말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터키 역사 구성’을 위해 터키역사연구회를 조직하여 세계 4대 문명은 모두 터키인에 의해 발흥되었다는 주장을 하도록 하고,¹³ 인류 가운데 처음 언어를 만든 것은 터키인이며 세계의 모든 언어는 터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덕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태양 언어 이론’(Gunes Dili Teorisi)을 만들어 주입하였다.¹⁴ 1925년 오스만 제국의 공식 언어인 오스만어를 폐기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터키어를 표준어로 공포하였다. 1928년 라틴 알파벳 사용이 공포됨으로 공식 교육기관과 공공공간에서 쿠르드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보다 앞선 1925년 이미 쿠르드 전통복장 착용과 쿠르드족의 전통 명절인 네브루즈(Nevruz) 축제가 금지되었다.

터키 정부의 세속주의 정책과 쿠르드족 탄압 정책에 저항해 1925년 낙쉬반디(Naqshbandi) 종파 지도자 셰이크 사이드(Sheike Said)가 칼리프 제도의 부활을 내세우며 반란을 주도하였다. 이 반란을 진압한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의 무력반발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쿠르드족 이슬람 지도자 양성기관인 마드라사(Madrasa)와 테케(Tekke)를 폐지하였다. 이후에도 쿠르드족의 저항과 반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1932년 이주법을 제정하여 쿠르드인들을 터키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쿠르드인들을 동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강행하였다.

13 M. Tuncay, *Türkiye Cumhuriyeti'nde Tek Parti Yönetimi'nin Kurulması* (Ankara: Yurt yayınları, 1981), 325.

14 김성운, 『형제의 나라 터키 이슬람 들여다보기』 (서울: 글마당, 2013), 221.

쿠르드족은 터키 정부의 이러한 탄압정책을 심각한 문화적, 종교적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많은 뛰어난 이슬람 지도자들을 배출해온 마드라사와 테케를 폐쇄하고 정부가 통제하는 종교정책을 따르라는 강요는 쿠르드 종교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속해있는 샤피파(Shafi)를 포기하고 터키인이 따르는 하나피파(Hanafi)를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상황은 알레비파를 따르는 쿠르드족과 야지드교를 믿는 쿠르드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터키 건국 초기 발생한 대부분의 반란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슬람 지도자 양성기관 폐쇄 이후 쿠르드족 반란은 쿠르드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터키 민족국가 설립 프로젝트에 따른 강압적인 동화정책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 2000년대까지도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쿠르드족에 대한 배척과 소외와 차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르드족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문화와 언어 종교를 말살하여 터키화 하려던 국가 정책과 터키 민족주의자들이 가한 강압적 억압은 쿠르드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한 억압과 상처는 쿠르드 민족의식을 강화시켜 쿠르드 민족주의가 발흥하도록 만들었다. 쿠르드 지도자들은 ‘터키 역사 재구성’과 ‘태양 언어 이론’에 대응하여 쿠르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쿠르드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카와’(Kawa)신화¹⁵와 쿠르드족의 용맹성을 찬양하는 ‘샤라프나메(Sharafname)’¹⁶ 서사시, 그리고 아메드 카

15 카와 신화(Kawa)에 대해서는 <https://www.kurdishinstitute.be/kawa-and-the-story-of-newroz/>을 보라.

16 샤라프나메(Sharafname)에 대해서는 <https://en.wikipedia.org/wiki/Sharafnama/>을 보라.

니(Ehmede Xani)의 서사시 ‘멤우진’(Mem u Zin)¹⁷을 발굴하여 쿠르드어로 출판하고 쿠르드인들의 축제일인 ‘네브로즈’(Newroz)를 민족의 명절로, 쿠르드 시인 딜다르(Dildar)가 1938년 작사한 ‘에이 레키브’(Ey Reqib)¹⁸를 민족의 노래로 삼았다. 이러한 신화와 서사시 그리고 노래는 쿠르드족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쿠르드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쿠르드족을 말살시키려는 터키 민족주의가 역설적으로 쿠르드 민족의식과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 쿠르드 민족주의는 다시 터키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변증법적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터키-쿠르드 문제에는 문화적 요인 못지않게 정치적,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터키는 건국 이후 1950년까지 공화국민당(CHP) 일당체제를 고수했다. 일당체제 하에서 소수의 쿠르드인이 국회에 진출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쿠르드인을 대표하고 대변한 것이 아니라 쿠르드족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1당 독재 체제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끈질긴 민주화 요구로 1950년 다당제가 도입되었지만 쿠르드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은 반국가 단체라는 명목으로 강제해산 되고 정당 지도자들은 암살되거나 구속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또한 국회는 쿠르드 정당이 국회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득표율 10% 이상이 되지 않는 정당 소속 후보자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는 법을 제정하였다. 쿠르드 문제를 제도적, 정치적 테두리 안에서 이슈화하고 해결하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제제를 당하자 무력을 통한 급진적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17 멤우진(Mem u Zin)에 대해서는 https://en.wikipedia.org/wiki/Mem_and_Zin을 보라.

18 에이 레키브(Ey Reqib)에 대해서는 https://en.wikipedia.org/wiki/Ey_Req%C3%AEb을 보라.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쿠르드 노동당(PKK: Partiya Karkeren Kurdistan/Kurdistan Isci partisi)이다. 이 단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조직되어 반정부적 테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쿠르드족 가운데 암묵적으로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요인 또한 터키-쿠르드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쿠르드족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동쪽 지역은 서쪽 지역에 비해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쿠르드족 거주 지역은 터키 건국 이후부터 계속된 무력충돌과 그로 말미암은 계엄령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경제구조도 대지주와 소작농으로 구성된 봉건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쿠르드족 거주 지역은 투자와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터키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다. 쿠르드족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경제적 상황이 국가의 차별정책과 그 차별정책에 동조하는 대지주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쿠르드족 지역의 경제구조와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내세우는 PKK가 종교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쿠르드 지역에서 추종자를 얻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M. Hechter는 경제적인 요인이 민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⁹ PKK의 마르크스주의 경제논리가 쿠르드 대중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터키-쿠르드 문제를 유발시킨 요인들 가운데 일부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약화되고 있지만 쿠르드족 마음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 독립에 대한 기대와 염원은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19 M. Hechter, *Internal Colonialism: The Celtic Fringer in British National Development 1536-1966* (London: Routledge and Kagan, 1975).

IV. 터키-쿠르드 문제의 발전 과정

터키-쿠르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한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현재 터키인과 쿠르드인들이 이 문제를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축적된 것이며, 둘째 터키-쿠르드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예상은 이 문제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봄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1876년 오스만 황제이자 이슬람 칼리프로 즉위한 압둘하미트 2세(II Abdulhamit)는 발칸지역에서 영향력을 상실하자 아나톨리아의 무슬림들을 제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다. 그는 아나톨리아를 자신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에 두기 위해 17세기 오스만 제국과 이란 사파비 왕조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던 쿠르드 공국을 폐지하고 중앙정부에 예속시켰다. 그러자 쿠르드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황제는 반란을 진압하였지만, 그 결과적으로 많은 쿠르드 씨족 공동체가 발생하였다. 그 와중에 거주지역이 쿠르드족들과 겹치던 아르메니아인들 가운데 민족주의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 아르메니아인들의 민족주의 운동은 쿠르드인에게도 민족의식을 일깨워 1880년 셰이크 우베이둘라(Sheke Ubeydullah)가 주도하는 쿠르드 민족주의 성격을 띤 최초의 반란이 발생했다. 셰이크 우베이둘라가 주도한 반란은 기독교계 아르메니아가 건국되면 자신들의 영토가 손실되고 이슬람이 약화 될 것을 우려한 쿠르드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우베이둘라는 아르메니아 건국을 막기 위해서 여성들까지도 무장해야 하며²⁰ 이란

20 W. Jwadih, *The Kurdistan Nationalist Movement: Its Origine and Development* (Syriacus University Press, 1963), 183.

과 오스만 제국에 분리되어 있던 쿠르드 영토를 결집하여 하나의 국가를 설립하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 이 반란은 이란의 강력한 대응으로 진압되었지만 쿠르드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올손(Olson)은 1880년 발생한 셰이크 우베이둘라 반란을 ‘쿠르디스탄’의 이름으로 쿠르드 민족국가를 세우려 했던 최초의 시도로 평가한다.²²

우베이둘라 반란은 쿠르드 민족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쿠르드 정체성 형성을 목표로 1898년 최초의 쿠르드인 신문인 ‘쿠르디스탄’(Kurdistan)이 창간되었으며, 압둘라흐만 베디르한(Abdurrahman Bedirhan)은 이 신문의 사설을 통해 쿠르드인은 각성하여 황제 압둘하미드 2세에 맞서 자치권과 영토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²³ 또한 ‘쿠르드 진보 협력당’(Kurt Terakki ve Teavun Cemiyeti)이 결성되고 <<규정집>>(Nizamnamesi)이라는 잡지가 발행되어 쿠르드인의 개화와 정체성 확립에 나섰다. 이 단체들은 쿠르드족이 분열을 극복하고 연합과 단결하여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쿠르드어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쿠르드어 문학 작품들을 출판하고 쿠르드 문학사를 정리 출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⁴ 그러나 무슬림들 가운데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오스만 정부는 ‘쿠르드 진보 협력당’을 폐지하고 쿠르드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1914년 비들리스(Bidlis)에서 발잔(Barzan)이 봉기를 일으키고 이후 쿠르드족의 반란은 정치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21 Ibid., 183.

22 R. Olson, *The Emergence of Kurdish Nationalism 1880-1925*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1), 7.

23 Bozarşlan, “Kürt Miliyerçiliği ve Kürt Hareketi(1898-2000),” 845.

24 M. E. Bozarşlan, der, *Kurd Terakki ve Teavun Gazetesi* (Uppsala: Deng, 1995), 69-71.

쿠르드 민족주의 운동은 1차 대전 이후 더욱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19-1920 주요 쿠르드 도시들에 쿠르드 그룹들이 조직되었고, 이스탄불에는 ‘쿠르디스탄 번영회’(Kurdistan Teali Cemiyeti)가 결성되었다.²⁵ 이 시기 결성된 쿠르드 단체들은 일치된 정치적 견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스만 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세리프 파샤(Serif Pasa)는 쿠르드의 독립을 주장했으며, 종교 지도자 세이드 압둘카디르(Seyyid Abdulkadir)는 터키인과 쿠르드인의 협력과 연합을 주장했다. 지방의 쿠르드족 영주들은 아르메니아가 독립하면 자신들의 영토를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여 아르메니아와 쿠르드를 독립시킨다는 세브르 조약을 반대하고 무스타파 케말이 주도하던 터키 독립운동을 지지하였다.

쿠르드족 내의 이러한 견해 차이와 내부적인 불협화음으로 ‘쿠르드스탄 번영회’는 영향력을 상실하고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쿠르드스탄 번영회’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지만 이 운동을 대변하던 신문 ‘진’(Jin)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진’(Jin)은 사설을 통해 당시 세계적 사조에 따라 쿠르드족은 실증주의, 사회적 다윈주의에 토대한 근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²⁶ 쿠르드 민족주의가 뿌리내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쿠르드 역사를 찾아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신문은 쿠르드족의 역사는 기원전 17세기 메테와 더 나아가 선지자 노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장구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카와(Kawa) 신화에 토대를 두고 쿠르드족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한 영향으로 1919년 아흐메드 카니(Ehmed'e Xani)의 서

25 I. Göldaş, *Kürdistan Teali Cemiyeti* (Istanbul: Doz, 1992).

26 M. E. Bozarslan der, *Jin 5, C.* (Uppsala: Deng, 1987).

사시 멤우진(Mem-u-Zin)이 이스탄불에서 출판되었다.²⁷ 이러한 작업은 이후 쿠르드 민족의식 고취와 쿠르드 민족주의 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역사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터키가 독립전쟁을 하던 1920-1923 동안 쿠르드 민족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은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슬람과 샴의 터전인 땅을 지켜야한다는 긴박한 의식이 민족감정보다 앞선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Jin) 지와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아 1921년 터키의 중부 델심(Dersim)에서 알레비파 쿠르드족이 코츠기리(Kocgiri)의 주도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아주 잔인하게 진압되었고 진압 방식에 대한 쿠르드족의 불만도 있었지만 전쟁 중이라 다른 쿠르드족 부족들이 호응하지 않았다.²⁸

1923년 터키의 독립과 함께 다시 쿠르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터키와 서구 국가 사이에 체결된 로잔언약은 서구가 터키의 독립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터키가 영토 내의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 유대인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은 명시하였지만 세브르 조약에서 약속했던 쿠르드족의 자치와 독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무스타파 케말이 독립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쿠르드족에게 내건 터키인과 쿠르드인의 동등한 권리부여, 쿠르드족의 자치권 인정 그리고 칼리프 제도의 부활과 같은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1924년 무스타파 케말은 공화국 민당(CHP)을 설립하면서 한 언어, 한 문화 한 열정으로 하나 된 민

27 Baskın Oran, “Kürt Milliyetçiliğinin Diyalektiği,” Tanıl Bora · Muratgütekimgil ed, *Milliyetçilik* (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2002), 875.

28 Doza Kurdistan, *Kürt Milletininin 60 Yıllık Esarettten Kurtuluş Savaşı Haritaları* (Ankara: Öz-Ge, 1991), 91.

족 건설을 건국 목표로 제시하였다.²⁹ 그러한 목표에 따라 터키어가 국가 공용어로 지정되고 쿠르드어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각종 법령을 통해 쿠르드 전통문화는 금지되었고 쿠르드인들은 터키 정체성을 잃어버린 터키인으로 취급을 받았다. 이러한 억압과 차별 그리고 강제적 동화작업은 한 동안 잠잠했던 쿠르드 민족의식과 민족주의 운동을 다시 발화시켰다.³⁰

터키 독립 직후 국가의 반 쿠르드족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두 단체가 결성되었다. 1923년 ‘자유’(Azadi)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을 이끈 사람들은 오스만 제국의 지도층에 있던 쿠르드계 인사들이었다.³¹ 이 단체의 목적은 쿠르드족의 역사와 문명 연구를 통해 쿠르드족의 역사와 문명이 인류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Azadi 활동의 영향으로 1925년 쿠르드족 종교지도자 세이드 사이드(Seyyid Said)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에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쿠르드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³² 그러나 이 반란을 일으킨 쿠르드족은 순니 무슬림 자자어(Zaza)를 사용하는 그룹이었고 쿠르만지어(Kurmanji)를 사용하는 쿠르드족과 알레비파쿠르드족은 반란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 결국 반란은 정부군과 정부군에 협조한 다른 쿠르드족 그룹에 의해 진압되었다.³³

세이드 사이드의 봉기가 실패하고 난 후 1927년 레바논에서 ‘호이분당’(Xoybun Cemiyeti)이 조직되었다. 이 당은 쿠르드 부족대

29 T. Parla, *Türkiye’de Siyasal Kültürün Resmi Kaynakları Cilt 3: Kemalist Tek Parti İdeolojisi ve CHP’nin Altı Ok’u* (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1995), 88.

30 Baskın Oran, *Atatürk Miliyetçiliği: Resmi İdeoloji Dışı Bir İnceleme* (Ankara: Bilgi yayınevi, 1990), 204–205.

31 Bozarşlan, “Kürt Miliyetçiliği ve Kürt Hareketi(1898–2000),” 848.

32 Kemal Kirişçi · Gareth M. Winrow, *Kürt Sorunu: Kökeni ve Gelişimi* (İstanbul: Tarih Vakfı Yayınları, 1997), 109.

33 Ibid, 110.

표와 이슬람 종단 대표들로 구성되어 쿠르드 대중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이 단체의 리더였던 젤라데트 베디르칸(Celadet Bedirxan)은 당의 목적을 “터키의 속박 아래에 있는 쿠르디스탄과 쿠르드인의 해방과 독립된 쿠르디스탄 국가를 건국하는 것”이라고 표명하고 “쿠르디스탄 경계 안에 터키 군인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투쟁한다.”고 선언하였다.³⁴ 호이분당의 본부가 레바논에 있었기 때문에 당을 폐지할 수 없었던 터키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영토 내에 있던 쿠르드족의 전통적 사회, 종교 구조를 와해시키고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였다.

터키 정부의 무력행사에 저항하여 1925년-1938년 사이에 무려 18번의 쿠르드 무장봉기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봉기는 청년 투르크당(Jon Turkler) 장교 출신의 셰이크 이흐산 누리(Sheike Ihsan Nuri)가 (Ari)주에서 일으킨 반란이었다. 이 반란은 쿠르드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이란의 지원까지 받아 3년 동안 지속되면서(1927-1930) 아라라트(Ararat) 독립국을 선포하는 데까지 발전하였지만 터키와 협상한 이란이 지원을 철회하면서 진압되었다. 이어서 터키 중부 델심(Dersim)에서 알레비파 쿠르드족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 1930-1938년까지 저항했지만 잔인하게 진압되고 도시의 이름도 툰젤리(Tunceli)로 변경되었다. 델심 반란 이외에도 여러 쿠르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봉기가 발생하였지만 쿠르드족 전체를 규합하지는 못하였다. 쿠르드족 반란이 쿠르드족 전체를 규합하는 규모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지방 토호들을 중심으로 하는 씨족적 유대를 민족적 유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쿠르드인의 전통 때문이었다. 터키 정부는 이 때 발생한 쿠르드족의 반란을 쿠르드 민족주의 운동이 아니라 봉건적 집단이 일으킨 것으로

34 R. Alakom, *Hoybun Örgütü ve Ağrı Ayaklanması* (Istanbul: Avesta, 1998), 26-29.

로 규정하고 있다.³⁵

텔심 봉기이후 1938년부터 약 20년 동안 쿠르드족 반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민족의식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터키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봉기를 일으킬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란이 진압되자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을 분산하여 서쪽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터키인으로 동화시키는 작업을 강행하였다. 이 시기에 서쪽으로 이주 당한 알레비파 쿠르드인들은 종교적으로 순니화되고 언어적으로도 터키어를 사용하고 있다. 1950년 일당체제의 종식과 함께 쿠르드족들에 대한 압박과 통제가 완화되자 쿠르드족의 유력한 가문들이 정당과 연계하여 정계로 진출하면서 터키-쿠르드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텔심 봉기 이후 무력시위는 없었지만 쿠르드 민족주의 운동은 형태를 달리하여 지속되었다. 이 시기 쿠르드 엘리트들은 쿠르드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Roji Nu, Ronahi>>와 같은 잡지를 발행하고 쿠르드 역사를 기술하는 활동에 집중하였다. 국가의 박해아래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있지만 쿠르드 민족은 영원하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땅은 항상 쿠르드 민족에게 속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서 다음 세대에 민족적 정체성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흐산 누리(Ihsan Nuri)는 자신이 쓴 『쿠르드 역사』(*Kürt Tarihi*)³⁶에서 쿠르드 전사들의 비석들을 쿠르드인들과 자유와 변영의 상징이며 수백 년 동안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한 자랑거리로 소개하고 있으며 누리 텔시미(Nuri Dersimi)은 1952년 발표한 『쿠르디스탄 역사에서 텔심』(*Kürdistan Tarihinde Dersim*)³⁷에서

35 M. Bayrak, *Acık-Gizli / Resmi-Gayri Resmi Kurdoloji Belgeleri* (Ankara Öz-Ge, 1994).

36 Ihsan Nuri, *Kürt Tarihi* (İstanbul: Yönetim, 1976), 11-12.

37 Nuri Dersimi, *Kürdistan Tarihinde Dersim* (İstanbul: Zel Yayıncılık, 1994).

쿠르드 역사가 쿠르드 민족 투쟁의 합법적 근거라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책은 출판 당시에 큰 이목을 끌지 못했지만 70년대에 다시 출판되어 쿠르드족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 동안 잠잠해 보이던 터키-쿠르드 문제는 1960년 군사 쿠데타 이후 다시 국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정권을 잡은 직후 55명의 쿠르드족 지도자들을 유배하고 쿠르드 민족주의자들을 투옥하였다. 군부가 쿠르드 민족주의자들을 국가를 위협하는 위협요소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와중에 1961년 바르자니(Barzani)가 북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에 마르크스주의적 성향을 가진 ‘쿠르디스탄 민주당’(KDP)을 결성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하자 여기에 영향을 받은 터키 쿠르드인들도 1965년 ‘터키 쿠르디스탄 민주당’(Turkiye Kurdistan Demokrat Partisi)을 결성하였다. 쿠르드 독립운동이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터키 정부는 한편으로 쿠르드 민족운동을 억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건국 후 터부시되던 쿠르드족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³⁸ 정치권에서 쿠르드 문제가 의제로 다루어지자 좌파 성향의 언론에서도 쿠르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1968년 사회주의 운동이 서구를 휩쓸자 쿠르드족 엘리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독립을 위한 이념적 토대로 삼고 쿠르드 독립운동을 쿠르드 민족주의의 범위를 넘어서 제국주의와 자본가에 맞선 노동자와 농민의 투쟁으로 확대시키고 쿠르드족 도시들에서 대중 운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운동에 영향을 받은 쿠르드 청년들은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여러 조직과 단체를 설립하여 정치적 활동을 통한 독립투쟁을 전개하였다.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38 Hamit Bozarslan, 853.

이 단체들은 정부와 터키민족주의자들을 향하여 쿠르드인, 쿠르드어, 쿠르드 문화 그리고 쿠르드 경제기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주장하였다.³⁹ 이 기간 동안에도 쿠르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968년 쿠르드어 문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에흐메드 카니(Ehmede Xani)의 *Mem-u-Zin*이 출판된 것이었다. 이 책은 쿠르드어가 문자언어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쿠르드 독립운동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자 터키-쿠르드 문제는 더욱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쿠르드 독립운동이 사회주의 운동으로 흘러가자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쿠르드 지도자들은 사회주의로부터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 집권 정의당(Adalet Partisi)에 합류하였다. 이로 인해 쿠르드족은 내부적으로 이슬람주의자-사회주의자, 지주-농민, 순니파-알레비파, 친 국가주의자-반 국가주의자 등으로 나누어져 자신들의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터키 정부가 민족국가 프로젝터를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는데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1970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스마일 베식치(Ismail Besikci)가 터키에 쿠르드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10년 형을 언도 받은 것은 당시 터키에서 쿠르드족 문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사항이었는지를 보여준다.

터키와 쿠르드족 내에서 좌우논쟁이 한창이던 1978년 압둘라 오잘란(Abdullah Öcalan)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을 결집하여 '쿠르드 노동당'(Partiya Karkeren Kurdistan/Kurdistan Isci partisi)을 설립하였다. 오잘란은 쿠르드족의 가치와 민족정서에 무게를 두고 쿠르드족 청년들에게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억압과 수탈의

39 Ibid., 856.

원인은 봉건주의, 제국주의에 있으므로 계급차별을 철폐함으로 쿠르드족 독립 이루어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터키에서 사회주의와 쿠르드족 독립운동이 확산되고 좌우, 터키-쿠르드 사이에 유혈충돌이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1980년 9월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다. 정권을 잡은 군부는 터키에서 사회주의와 쿠르드 민족주의 운동을 제어하기 위해 터키-이슬람 종합을 국가의 공식적인 이념으로 채택하였다.⁴⁰ 터키-이슬람 종합의 목적은 순니 이슬람을 강화시키고 쿠르드족을 동화시켜 사회주의와 쿠르드 민족주의로 분열된 국론을 통일시키려는데 있었다. 군부는 쿠르드족 지도자들을 대규모로 투옥하고 강제적인 쿠르드족 동화정책이 다시 강화되었다. 1983년 쿠르드어 사용이 금지되었고 알레비파 쿠르드족을 순니 터키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알레비파 마을에 순니 모스크가 세워지고 학교에서 순니 이슬람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쿠르드인 국회의원 레일라 자나(Leyla Zana)가 국회 연설 중 쿠르드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15년 형을 언도받자 쿠르드족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설립이후 정치적 활동을 하던 압둘라 오잘란은 1984년 쿠르드인을 터키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적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쿠르드 사회주의 국가를 설립을 목표를 내세우고⁴¹ PKK를 군사조직으로 재편하여 쿠르드 독립 무장투쟁을 시작했다. PKK가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적인 쿠르드인들이 호응을 한 것은 군사정부의 강압적 동화정책과 억압이 만들어 낸 결과였다. 터키 정부는 PKK를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투입했다. 게릴라전을 펼치는 PKK를 진압하는 과정

40 터키-이슬람 종합에 대해서는 김성운, 『형제의 나라 터키 이슬람 들여다보기』 235-240을 보라.

41 A. Öcalan, *12 Eylül Faşizmi ve PKK Direnişi* (İstanbul: Mem Yayınları, 2001), 80.

에 많은 쿠르드족 마을이 소개되고 주민들은 강제이주를 당하거나 PKK와 연류 되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PKK의 무장투쟁과 정부군의 진압이 반복되던 1984년-1997년 사이 4000여개의 마을과 촌락이 파괴되고 4만 5천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쿠르드 민간인이었다.⁴² 이로 인해 쿠르드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스탄불, 이즈밀, 아다나와 같은 대도시로 이주했다. 대도시로의 집단 이주는 농업에 기반을 둔 쿠르드 지역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PKK의 활동이 대도시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1999년 압둘라 오잘란의 체포와 수감으로 PKK의 영향력은 급격하게 약화되었지만 이라크 시리아 국경지대에 기반을 둔 게릴라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력투쟁으로 인해 PKK가 쿠르드 민족 저항운동을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적 이념 성향과 테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인해 종교적 쿠르드인들과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쿠르드인들은 PKK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KK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한 열사의 이미지로 인해 쿠르드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PKK와 정부군 간의 무력충돌이 악화되자 정치적 방법을 통해 터키-쿠르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키인과 쿠르드인 양쪽 모두에서 힘을 얻게 되었다. 1990년 쿠르드 지도자들은 쿠르드 문제에 대한 합법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정당을 설립했다. 쿠르드 정당은 이듬해 1991년 지방선거에서 디야르바크르(Diyarbakir) 아리(Agri), 바트만(Batman)과 같은 주요 쿠르드 도시들에서 승리를 거두고 5%가까운 전국 득표율을 얻었다. 그러자 쿠르드인들의

42 Gerard Chaliand, *La Guestion Kurde'a l'heure de Daech*, 은정 펠스너 역 『쿠르드 연대기: IS 시대의 쿠르드족 문제』 (경기도 파주: 한울, 2015), 106.

중앙정치 진출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 정부와 정당들은 쿠르드 정당이 국회로 진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정당의 전국 득표율이 10%를 넘지 않으면 그 당에 속한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무효로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쿠르드족 정치인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면 정당으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국회로 진출하자 이번에는 쿠르드 정당을 반국가적 단체라는 명목으로 폐쇄시켰다. 쿠르드 정치인들은 한 정당이 폐쇄되면 다른 정당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투쟁을 계속했다. 이렇게 해서 국민 노동당(HEP), 민주 노동당(DEP) 국민 민주당(HADEP)이 차례로 설립되고 폐쇄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쿠르드 국회의원들과 지도자들이 구속되거나 살해 또는 암살되었다. 쿠르드 정당에 대한 국가의 탄압은 PKK의 활동을 정당화하는데 일조를 했다.

2000년에 들어오면서 정권을 잡은 정의 발전당(AKP)은 쿠르드 문제에 보다 온전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AKP는 국민을 호칭할 때 ‘터키인’이라는 민족적 요소보다 ‘터키국민’이라는 국가적 요소를 내세웠고, 쿠르드 문제를 다룰 때는 ‘쿠르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쿠르드족의 존재를 인정했다. 하지만 쿠르드 정치인들과 정당들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었고 쿠르드 정당이 국회로 진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 득표율 10% 장벽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치러진 총선에서 쿠르드 정당인 국민 민주당(HDP)은 11.7%의 득표를 얻어 67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제 3당으로 국회에 진출하였다. HDP가 이전 쿠르드 정당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할 것인지 아니면 쿠르드족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터키-쿠르드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터키는 건국이후 오랫동안 쿠르드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쿠르드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쿠르드족에 대한 배척, 소외, 강제적 동화와 같은 차별은 없다고 주장한다. 쿠르드인은 터키 국민으로 터키인과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있으므로 흑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쿠르드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PKK는 국내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가들의 선동으로 발생한 외부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⁴³ 정부의 이러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터키 쿠르드족은 여전히 모국어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알레비파는 독립된 이슬람 분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쪽 쿠르드족 지역은 계엄 상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터키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 된 상태에 있다.

터키에서 쿠르드 문제는 휴화산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쿠르드족은 배척과 강제적 동화가 남긴 깊은 상처와 울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터키 민족주의 정당들은 반 쿠르드 정책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고 젊은 세대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더구나 이라크, 시리아, 이란의 쿠르드족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만일 시리아나 이란에서 쿠르드족 자치정부가 세워지거나 이라크에서 쿠르드족이 독립 전쟁을 벌이기라도 한다면 터키-쿠르드 문제는 견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다. 터키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터키 쿠르드족들을 견제하면서 이라크와 시리아 쿠르드족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43 이런 주장은 터키 외무부 장관이 뉴욕 타임즈에 최근 기고한 논문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https://www.nytimes.com/reuters/2018/09/13/world/europe/13reuters-mid-east-crisis-syria-turkey-minister.html>

V. 터키-쿠르드 문제에 대한 전망

터키-쿠르드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호로위츠(Horowitz)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인종 그룹간의 충돌은 지속 될수록 강도가 더욱 강해지며 빈도도 높아지고 그룹 정체성도 지속적이고 배타적이 되어 해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⁴⁴ 터키-쿠르드 문제는 터키 민족주의와 쿠르드 민족주의가 한 세기 이상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이다. 터키 쿠르드족이 민족 국가로 독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충돌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쿠르드족은 허드슨(M. Hodson)이 “씨족적 민족주의”라 부를 만큼 언어, 종교, 문화, 경제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⁴⁵ 쿠르드족은 민족 전체의 이익보다 씨족의 이익에 따라 터키-쿠르드 문제를 바라본다. 따라서 자기 민족의 문제에 대한 쿠르드족의 일치된 시각이 없다. 이것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셋째는 터키-쿠르드 문제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르드족은 부족들 간의 언어와 이해관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유대와 결속을 중심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터키-쿠르드 문제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쿠르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 최근 시리아 내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치정부를 세우기 위한 시리아 쿠르드족의 활동을 터키 정부는 자신의 문제로 인식한다. 강대국들도 쿠르드 문제를 해결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

44 D. L. Horowitz, *Ethnic Groups in Conflict* (London: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85), 53-54.

45 Mihael Hudson, *Arab Politics, The Search for Legitim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와 쿠르드족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가능한 선택이 있어 보인다. “분리”(Exit), “항의”(Voice), 충성(Royalty)이 그것이다.⁴⁶ 분리는 쿠르드족이 터키로부터 분리해서 독립된 국가를 세우는 것이며, 항의는 쿠르드족이 자신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저항을 계속하는 것이고, 충성은 쿠르드족이 독립과 저항을 중단하고 터키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쿠르드족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터키-쿠르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칼자루는 쿠르드족보다는 터키가 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터키가 쿠르드족에 대해 어떤 정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쿠르드족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터키가 탄압과 동화 정책을 계속한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 될 것이다. 하지만 터키가 쿠르드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권리를 인정한다면 쿠르드족은 터키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독립을 추구하는 쿠르드인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쿠르드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터키가 쿠르드족의 정체성과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주변 국가들에 있는 쿠르드족이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내전을 기회로 쿠르드족이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독립을 하는데 성공한다면 터키-쿠르드 문제는 더욱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발전할 것이다.

46 Albert. O. Hirschman,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VI. 결론

터키-쿠르드족 문제는 오스만 제국의 해체와 터키의 건국으로 발생하여 지금까지 발전해왔다. 외부에서 볼 때 터키-쿠르드 문제는 쿠르드족 독립과 관련된 문제로 보이지만, 내부에서 보면 다양한 국면과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터키의 주류 정당들과 다수의 국민은 쿠르드족의 문제를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권리에 대한 인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터키 민족주의자들은 터키를 분열시켜 무너뜨리려는 외세의 정략에 의해 생겨난 인위적인 문제로 인식한다. 그래서 터키를 건국한 세력과 국가 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군부와 민족주의자들은 쿠르드족의 독립 요구뿐만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구마저 묵살하여왔다. 터키 민족주의자들의 그러한 정책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쿠르드 민족주의 의식과 쿠르드 민족주의를 강화하여 마찰과 충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최근에 와서 쿠르드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다소 변화가 있지만 국가의 정책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터키-쿠르드 문제를 바라보는 터키인들의 시각이 다양하듯이, 쿠르드인들도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터키 쿠르드족은 아주 다양하게 분리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종교적으로 터키 쿠르드족은 샤피파(Shafi) 무슬림들과 혼합주의 성격을 지닌 시아 계통의 알레비파 무슬림 그리고 예지드(Yezid)로 불리는 혼합주의 종교를 믿는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언어적으로는 서로 소통이 어려운 쿠르만지어(Kurmaci)와 자자어(Zaza) 그리고 터키어를 사용하는 그룹으로 분리되어있

다. 또한 사회적으로 아쉬레트(Ashiret) 라고 불리는 유력한 씨족을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터키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문화적 권리를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있다.

터키-쿠르드 문제는 또한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적인 문제이다. 이라크 쿠르드족은 사담 후세인 통치아래 10만 이상이 학살을 당했고, IS가 통치하는 동안에도 많은 쿠르드인들이 살해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리아 내전에서도 쿠르드인들은 반정부적 세력으로 규정되어 정부와 이들의 편에 있는 러시아와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란의 쿠르드족의 상황도 이들에 못지않게 열악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각 국의 쿠르드족은 독자적으로 또는 인근 국가의 쿠르드 그룹들과 연합하여 생존과 자치, 독립을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라크 전쟁 이후 북 이라크에 세워진 쿠르드 자치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독립을 위한 투표를 시도하여 국민의 절대다수인 92%가 찬성을 했지만 유전지역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바그다드 정부의 무력시위와 이들의 독립이 자국에 파급될 것을 두려워한 터키와 이란의 강력한 개입 그리고 쿠르드 문제가 불안정한 중동의 정세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서방국가들의 반대로 독립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시리아 내전을 계기로 시리아 북부에서 쿠르드 자치정부를 세우려는 시리아 쿠르드족의 시도역시 터키와 이란의 무력개입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터키, 이란, 시리아, 이라크는 순니-시아로 나뉘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쿠르드족 문제만큼은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하고 있다. 쿠르드족 문제는 이들 국가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차 대전 이후 영국과 이라크 전

쟁 이후 미국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강대국들에게 있어 중동에서 쿠르드족은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터키-쿠르드 문제는 쿠르드 민족의 독립과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터키와 쿠르드 두 민족이 터키라는 한 국가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상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논문에서 살펴본 것을 돌이켜 본다면 터키-쿠르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주도권은 터키가 가지고 있다. 터키가 쿠르드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쿠르드족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터키가 유행이 지난 민족국가 프로젝터를 계속 추진하면서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과 동화를 계속 강행한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 될 것이다. 하지만 터키가 오스만 제국의 경험을 되살려서 쿠르드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를 지향한다면 더 많은 쿠르드인들은 터키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웃에서 쿠르드족이 독립 국가를 세우지만 않는다면,

■ 참고문헌

한국어

공지현. “쿠르드족 민족주의 운동.” 『중동연구』 제18-2권 (1999): 153-188.

김성운. 『형제의 나라 터키 이슬람 들여다보기』. 서울: 글마당, 2013.

샬리앙, 제라드. 은정 펠스너 역. 『쿠르드 연대기: IS 시대의 쿠르드족 문제』. 경기도 파주: 한울, 2015.

터키어

Alakom, R. *Hoybun Örgütü ve Ağrı Ayaklanması*. Istanbul: Avesta, 1998.

Bayrak, M. *Acık-Gizli / Resmi-Gayri Resmi Kurdoloji Belgeleri*. Ankara: Öz-Ge, 1994.

Bozarslan, Hamit. “Kürt *Milîyerçiliği* ve Kürt Hareketi(1898-2000).” Tanıl Bora · Muratgültekinçil ed. *Milliyetçilik*. 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2002.

Bozarslan, M. E. der. *Kurd Terakki ve Teavun Gazetesi*. Uppsala: Deng, 1995.

_____. *Jin 5, C*. Uppsala: Deng, 1987.

Celil, C. *XIX. Yüzyıl Osmanlı İmparatorluğu’ unda Kürtler*. Ankara: Öz-Ge, 1992.

Demirel, A. “Government and Opposition in the First Grand National Assembly.” (Ph. D. diss. Istanbul Bogazici Universitesi), 1993.

www.kci.go.kr

- Dersimi, Nuri. *Kürdistan Tarihinde Dersim*. İstanbul: Zel Yayıncılık, 1994.
- Dursunoğlu, Cevat. *Milli Mücadelede Erzurum*. Ankara: Ziraat Bankası Yayınları, 1946.
- Göldaş, I. *Kürdistan Teali Cemiyeti*. İstanbul: Doz, 1992.
- Kirişçi, Kemal · Winrow, Gareth M. *Kürt Sorunu: Kökeni ve Gelişimi*. İstanbul: Tarih Vakfı Yayınları, 1997.
- Kurdistan, Doza. *Kürt Milletinin 60 Yıllık Esarettten Kurtuluş Savaşı Haritaları*. Ankara: Öz-Ge, 1991.
- Nuri, Ihsan. *Kürt Tarihi*. İstanbul: Yönetim, 1976.
- Oran, Baskın. *Atatürk Milliyetçiliği: Resmi İdeoloji Dışı Bir İnceleme*. Ankara: Bilgi yayınevi, 1990.
- _____. “Kürt Milliyetçiliğinin Diyalektiği.” Tanıl Bora · Murat-gültekin ed. *Milliyetçilik*. 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2002.
- Öcalan, A. *12 Eylül Faşizmi ve PKK Direnişi*. İstanbul: Mem Yayınları, 2001.
- Parla, T. *Türkiye’de Siyasal Kültürün Resmi Kaynakları Cilt 3: Kemalist Tek Parti İdeolojisi ve CHP’ nin Altı Ok’u*. 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1995.
- Tuncay, M. *Türkiye Cumhuriyeti’nde Tek Parti Yönetimi’ nin Kurulması*. Ankara: Yurt yayınları, 1981.
- Yıldız, H. *Fransız Belgelerinde Sevr-Lozan-Musul Uçgeninde Kürdistan*. İstanbul: Koral, 1992.

영어

- Arfa, H. *The Kurds: 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y*. London: Oxford University, 1968.
- Hechter, M. *Internal Colonialism: The Celtic Fringer in British National Development 1536–1966*. London: Routledge and Kagan, 1975.
- Hirschman, Albert. O.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 Horowitz, D. L. *Ethnic Groups in Conflict*. London: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85.
- Hudson, Mihael. *Arab Politics, The Search for Legitim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 Hurewitz, J. C. *Diplomacy in the Near and Middle East: A Documentary Record: 1914–1956*. Princeton, N. J: Van Nostrand, 1956.
- Jwadih, W. *The Kurdistan Nationalist Movement: Its Origine and Development*. Syracuse University Press, 1963.
- MacDonald, Charles G. “The Kurds.” B. Schechterman and M. Slann, ed. *The Ethnic Dimens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Westport CT London: Praeger, 1993.
- Olson, R. *The Emergence of Kurdish Nationalism 1880–1925*.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1.
- Smith, Anthony D. *National Identity*. Hormondsworth–Middles: Penguin, 1991.

<https://www.kurdishinstitute.be/kawa-and-the-story-of-ne-wroz/> (2018. 8. 15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Sharafnama/> (2018. 8. 15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Mem_and_Zin (2018. 8. 15 접속)

<https://www.nytimes.com/reuters/2018/09/13/world/europe/13reuters-mideast-crisis-syria-turkey-minister.html>
(2018. 8. 15 접속)

■ ABSTRACT

Understanding and Forecasting the Turkish–Kurdish Dispute

Sung Woon Kim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long–lasting Turk–Kurdish dispute. Comprised of 500 tribes which share a common language, religion, culture, and history, the Kurdish people are the world’s largest stateless nation. Unable to establish a geographic state, the Kurdish people are dispersed throughout the borders of numerous countries; roughly 15–20 million in Turkey, 10 million in Iran, 5 million in Iraq, and 2 million in Syria today.

The fact that a nation exists without a state is not always a dire problem. In fact, not all nation groups have an independent state of their own nor particularly desire to have an independent state. However, oftentimes when an oppressive ruling nation and a minority nation exist under the same state, political dispute occurs. Turkey, comprised with 80% Turks and 20% Kurds, is one of the states in which such a dispute constantly surges. Though there are also problems of the same nature in Iraq and Iran which has re–

www.kci.go.kr

cently gained international attention, the Kurdish related problem in Turkey has a special layer of complexities.

Even amongst the Turks, some argue that though the Kurdish request to gain independence must not be accepted, their political, cultural, and religious rights must be respected, while others refuse to acknowledge the presence of Kurds at all. In addition to refusing their presence, they also claim the Kurdish problem is a result of outside forces creating an artificial presence to divide Turkey and lead it to its downfall. To makes matters more difficult, Kurds do not have a unified understanding and definition of their problems. Turkish Kurds exist with diverging interests and are divided by numerous factors. The Turkish Kurds religious affiliations are many and religiously incompatible. The religions practiced are, Sunni Islam, a Shia faction, Alevi, and a mixed divided faction of Yezid. Similarly, their languages are divided to Kurmanci and Zaza, which are not able to provide mutual linguistic communication. Socially, the nation is divided by the Asiret clan. In addition to these complexities, the Kurdish problem is an international problem which draws the interest of numerous nations. Beyond Turkey, Iran, Syria, and Iraq which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Kurdish problem, the Western political powers which have been using Kurds as a tool for their power play are also deeply involved with the issue. For such reason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ether the dispute is related to the independence of Kurds from Turkey or for the two nations to live compatibly under the same state, in addition

to who would have the ability to solve such a dispute.

This paper approaches the issue as a communal problem shared by Turkey and Kurdish rather than a single-sided oppressive situation by examin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progression of the issue. Using this approach, this paper offers a forecast of how the Turk-Kurdish dispute will progress in the near future.

Keywords: Turkey, Kurdish, Turkish-Kurdish Dispute, Nationalism, PKK